

종합

지자체 ‘자율 통합’ 시동

경기 남양주시가 7일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자율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데 이어 무안반도(북도·무안·신안)와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지자체도 건의서 제출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의 지자체 자율통합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무안반도·광양만권의 지자체에 따르면 목포시는 이날 25일째 무안군·신안군과 자율통합 건의서를 전남도지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목포시는 지자체장 단독으로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통합 분위기 확산과 시민들의 의견 표현을 위해 목포시의회 의결과 시민대표 연서를 통한 건의서도 동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구리시와 통합 건의서 전국 첫 제출

무안반도·광양만권도 토론회 등 적극 추진 나서

시민단체인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위원회도 8일 무안반도 자율 통합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 자체 설명회를 가진 뒤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양만권 통합 논의도 지난달 26일 여수·순천·광양 3개 지자체장이 합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2일 순천시에서 제2차 회의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오후 6시 여수YMCA에서 ‘광양만권 자율 통합 토론회’를 개최한

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자체 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 설명과 범 광양만권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게 된다.

광양시의회도 7일 광양시청에서 ‘광양 시민·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양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양만권의 일부인 여수·순천·광양 3개 시민의 기초자치단체로의 도시 통합은

반대한다”면서 “광역자치 형태의 구례·남해·하동 등이 포함된 광양만권 인근 6~7개 시군의 통합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광역단체가 다른 기초단체의 통합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남해·하동을 포함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양만권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광양시가 통합 논의를 거부할 경우 여수·순천·구례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율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어디 일자리 없나요”

계속된다.

7일 전남대학교 취업강의실에서 열린 ‘취업 두드림 한마당’ 행사에서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취업지원과가 마련한 이 행사는 오는 18일까지

/위정기기자 jrwi@

전남지역 농·수협 연체율 ‘전국 최고’

민노당 강기갑 의원 국감자료 “전국 농가부채 42조원”

전남의 지역농·수협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람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 연체규모(상호금융대출+정책자금대출)는 지난해 6월 3조 9천295억원에서 올 6월 현재 5조 5천 268억원으로 40.6% 늘었다.

또 지역수협의 경우도 지난 7월말 현재 연체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나 증가한 7천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 상반기 어렵던 파산자는 지난해 전체(1천177명)보다 22% 증가한 1천401명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농협 연체율은 지난 6월말 현재 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5.82%)과 부산(5.05%)이 뒤를 이었다.

지역수협의 경우도 전남의 연체율은 지난 7월말 현재 17.9%로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강원(13.0%)과 제주(7.8%)가 뒤를 따랐다.

강 의원은 “지나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비 폭등과 세계적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농·어가 경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 의원은 “농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어가를 화제시킬 수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운전면허 필기시험 쉬워진다

11월부터 어려운 용어 자체키로

11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단순 암기형 지식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력 측정 위주의 쉬운 문제로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 환경의 변화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맞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문제 위주로 개편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새로운 학과시험에서 총 40문항 중 실제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그림형 문제를 기존의 12개에서 15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교통정책을 반영해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운전자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반영되면 전체 문제의 난이도는 현행 시험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법원 첫 판결 파장 일 듯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법 개정 전까지는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도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명한 위헌적인 법조항도 법률이 개정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온 사법 관례를 뒤집는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시행령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금 여나 수당은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 현재는 2007년 3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 확대

전남 인재육성재단, 성적우수자 축소 등 기준 변경

전남 인재육성재단은 7일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새터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를 위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150만 원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 대학생을 108명으로 늘려 이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새터민

자녀 장학금도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 같은 변경된 기준으로 오는 17일까지 13개 부문 55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와 성적 우수자, 예체능 분야 특기자,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자녀, 5·18 유가족 및 그 자녀 등이며 저소득층 대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최권일기자 cki@

“임진강 수위 높아져 긴급 방류”

北 ‘임진강 사태’ 해명

실종자 시신 3구 인양

정부는 북측의 황강댐 방류 때문으로 추정되는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민간인 6명이 실종된 사태와 관련, 7

일 북측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전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에 이날 오전 11시 국토해양부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며 “통지문을 통해서 북측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어제 사전통보 없이

방류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관계기관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에 “임진강 상류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천 임진강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7일 재개돼 시신 3구를 인양함에 따라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不可近 不可遠...알지?!

산행안내는14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오씨 종친회 모임안내

나주오씨 배자 원자 할아버지 후손의 종친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무진회관 (송정리 영광동 소재) 945-3610
종친회장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최승훈(810327-15880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안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나 1207
공 고 인: 김문순, 최원영, 최현일
한정승인수리일: 2009. 9. 2.
공고기간: 2009. 9. 8~2009. 11. 7.(2개월)
연 락 처: 광주 광산구 흑석동 46 김 문 순 (010-8488-4791)

정 정 공 고

2009년 9월 5일 9면에 게재된 주식회사 수연기업(강)과 주식회사 수연중공업(울)의 합병으로 인한 제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중에서 다섯번째를 ‘의고’를 ‘의거’로 정정공고 합니다.

금산공인중개사

T.681-5666 H.011-601-5354 (금호동 서광주역 건너 2층도넛)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심정화제일동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

청 접근성과5.18 광로변)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부 동 산 투 자 클 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토 지

▶담양 청평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남평읍(중흥스파입구) 16,810㎡ 매 4억5천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광산구 요기동 담 3,000㎡ 매 1억3천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담 2,437㎡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용봉동(2층) 매 1억8천(보 5천/월 90)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고시동(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 당

▶월출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펜션 부지회적

▶(담양,장성 성일중)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룸부지, 담양민근무인텔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 인 중 개 사 무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사/원/모/접

모집부문	모집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음료파트	남,여 0명	웨이터,웨이츨러스	신입 및 경력
그늘집	여 0명	판매담당	주부가능(40세 이하) 컴퓨터 활용가능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이메일 및 우편접수 가능
- 이메일 : mannerwang@hanmail.net

▶근무조건

- 4대 보험가입, 기숙사제공, 우수사원표창
- 경조금, 의료비지원

▶기타사항

- 경영지원팀 최관식대리
- 연락처 : 061)320-7716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공업급식 냉 · 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